

민주 486결속... 당권구도 변할까

이인영 중심 독자세력화... 빅3와 경쟁 가능성 '하청정치'서 벗어나 홀로서기 할지는 미지수

민주당 486그룹이 이인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면서 독자세력화 여부와 당권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486 그룹의 후보단일화 강행을 독자세력화를 위한 단계를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명백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보단일화를 강행한 것을 단순하게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와 연대를 통해 최고위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빅3와 경쟁을 통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전 의원이 다코르스로 떠오르면서 당권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486 세력이 하나로 뭉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부터 비노(非盧) 성향의 김근태계로,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과는 다르다. 또 이 전 의원 진영은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박영선 의원과 김현미 전 의원이 가세하는 등 '연합군'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정세균 체제의 입이었던 이상호 전 의원은 486의 대변인이자 좌장으로 나선 상태다. 더욱이 컷오프에서도 최재성 의원은 정세균-백원우 의원과 트리올을 이뤘지만 이 전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의

로부터의 이탈로 간주, 486 일부가 손 전 대표나 정 고문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486 핵심 인사는 14일 "이번 전대는 486이 '하청정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성공하느냐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486이 (특정후보 지지)에 완전한 단일대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486 그룹은 정 전 대표와 경쟁 관건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의 파괴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써 486 내부에서는 '싱글-진골'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재성의 의원에게 피로를 열어주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단일화 승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정교에 들어간 최 의원의 거취가 486의 야심찬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전 의원에 대한 배제투표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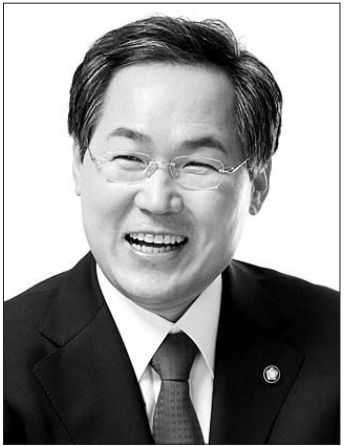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점은 단일화가 독자세력화를 할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이 전 의원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486 내부 균열로 인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파괴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써 486 내부에서는 '싱글-진골'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재성의 의원에게 피로를 열어주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단일화 승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정교에 들어간 최 의원의 거취가 486의 야심찬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둘하르방 선물을 받은 후보자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천정배, 이인영, 조배숙, 손학규(오른쪽부터) 후보가 14일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둘하르방을 선물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환스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현실적"

민주 대표적 개헌주자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14일 민주당의 대표적 개헌주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을 만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현제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방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개헌의 범위를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 '국민(인간의) 기본권 조항'까지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자는 견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의원 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기본권 개정은 환경 문제 등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개헌이다.

-헌법 개정의 당위성은.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상 입법부는 그동안 대권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전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7년 이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가지로도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현실적인 헌법 개정 방법은.

▲정치권이 정략적 의도만 배제한다면 인간의 기본권 문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 상황과 개헌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헌 시기는.

▲일단 2012년까지가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개헌을 추진한다면 2017년에도 가능하다.

-개헌의 주체는.

▲우선, 여야 정치권이 물 밑 접촉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후 개헌 특위를 발족시켜야 한다. 또한, 개헌 특위는 여야 정치권 인사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 범국민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에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는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90% 정도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적 의도만 배제한다면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소수 야당으로서 개헌과 관련,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헌은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

-개헌과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성은.

▲개헌의 내용과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므로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로 전환한다면 호남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선, 여야 정치권이 물 밑 접촉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후 개헌 특위를 발족시켜야 한다. 또한, 개헌 특위는 여야 정치권 인사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 범국민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에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는가.

조현오 '차명 발언' 등 공방 국회 예결위

"공정사회, 부메랑 될 수도"

정두언 의원 비판 눈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14일 여권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사회' 화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사회,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 출범시 기치로 내건 실용주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공정사회 화두가 야당을 공격할 수 있고 여당을 통제할 수 있고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어 레인덕 방지효과 있다고 말하지만, 양날의 칼이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공정

정 사회는 공정한 기회·절차·관계·결과 4가지로 이야기한다"며 "공정한 기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의 대물림으로 간다는 비판이 있고, 공정한 절차는 법치와 신상법원인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공정한 관계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왜 아무 말을 안하는지 의아스럽다"며 "공정한 결과는 세금이 중요한데, 세계 책값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재벌에 대해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고 있는지, 감세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회 예결위의 14일 '2009년도 결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답변 태도와 여야 의원들간의 행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갑원 의원은 전날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질의를 가로막았다며 "국인을 대표하는 의원인지 행정부의 앞잡이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을 두고 행정부의 앞잡이라고 국언을 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부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 "靑서 비공개 청문회 제의"

도덕성 비공개·자질 공개...靑 "그런 사실 없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러 핵심 인사로부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권에서)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한 인사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나는 '도덕성 검증은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테니 민주당이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비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청와대가) 사전 인사청문회 결과를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가 말한 여러 핵심 인사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인사청문회) 제의와 관련)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함께 박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감사원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리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서 작성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장장과 맹 장관은 이날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검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모두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후일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원점에서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살 발크림 출시!! 약국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소매가 ₩10,000

점포있으신 분, 취급하실 분 무지본 (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립니다)

유사업종 가계하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 하신분 환영! 절친리 판매중!!!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래변! 한방에 3일 10일 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속~ 굵기잡시다!

효과없을시 100%환불 1개월분 5만원 (백배무료배송)

영업달라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네이버카페 또는 다음카페에서 '유한바이오텍' 검색하세요!

YH 유한바이오텍 062) 954-5046 010-4624-5046 010-8364-1496

www.ctcl.co.kr

까띠글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글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회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마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맞이 및 캠페인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지사방문시 행운 가득!

Caticlair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까띠글레 호남지사 ☎ 062)362-1117 / 010-3608-6394

Jeju 제주알로에

소중한분을 위해 제주알로에에서 추석선물세트를 준비하세요

알로에젤200 행사가격 : 120,000원 1구입시 1개 더 증정
알로에정 행사가격 : 40,000원 1구입시 1개 더 증정

(위의 상품 외에 제주알로에 상품도 다양합니다.)

장소 :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
행사기간 : 2010.09.08(수) ~ 2010.09.21(화)
문의 : 062-221-1012

주식회사 제주알로에 /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